

4/19(월) 다니엘 묵상 7

다니엘 2:31-4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이전 앗수르 제국을 능가하는 힘과 권세를 가진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통치 3년째 되던 해, 이해할 수 없는 불길한 꿈을 꾸면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던 수많은 점술가들과 박사들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 맞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 다니엘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해줌으로써 느부갓네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나중에 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첫번째 해석(1)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이 꾸 꿈을 알아 맞추게 됩니다. 본문 31-35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매우 화려하고 찬란한 모양을 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부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양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또 종아리는 쇠이고, 발(가락)의 일부는 쇠이며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선가 나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치매 우상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친 그 돌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장 - 그림 참조).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어가게 됩니다.

1. 순금으로 된 머리: 순금으로 된 머리는 신바벨론 왕국을 뜻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37-38절).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구바벨론은 B.C. 1894-1595 년경에 존재하였으며 외세의 통치 시기(B.C. 1595-626년)를 지내며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외세의 통치 기간이 끝날 무렵, 바벨론은 독립을 위해 앗수르 제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강대국인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의 므로닥발라단은 히스기야왕 때 남유다와 동맹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사 39장). 신바벨론이 점차 강성해지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왕은 당시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를 세 차례나 공격하며 B.C. 586년에 결국 멸망시키게 됩니다.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왕 때(B.C. 605-562년) 최고의 명성을 떨치게 되고 뒤를 이어 에월므로닥(B.C. 562-550년)이 다스리게 됩니다. 에월므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왕을 친절하게 대해 주기도 했습니다(왕하 25:27-30,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 칠 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십 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굶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 신바벨론은 벨사살 왕(B.C. 550-539년)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들은 메대에 의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단 5:30-31,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였더라.”). 다니엘은 신 바벨론이 시작되었던 느부갓네살왕 집권 3년째부터 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국가의 총리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단 5: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심지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메데 왕국에서도 총리로서 계속 일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역하게 됩니다(단 6:1-3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왕을 특별히 택하사 그의 나라인 바벨론과 그의 왕위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첫번째 해석이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단 2:37-39절상,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 맞추고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왕은 놀라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영접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교만한 채 하나님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자만했습니다(약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에 신바벨론과 느부갓네살왕의 권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의 왕권과 권세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고백대로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을 위한 기도:**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위한 바른 정의와 사랑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IRIS (난민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과 세상 역사



금

바벨론 / Babylon
B.C. 605 - B.C. 539



은

메대 페르시아
Medo-Persia
B.C. 539 - B.C. 331



동

그리스 / Greece
B.C. 331 - B.C. 168



철

로마 / Rome
B.C. 168 - A.D. 476



철과 진흙

열국시대
A.D. 476 - 세상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돌나라
(하나님의 왕국)